

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

브릿지경제

농어촌공 세종대전금산지사, '농촌집고쳐주기' 봉사

임광수 어르신, “헌집 고쳐줘 정말 감사 합니다”

윤소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22-05-03 18:02



3일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는 금산군 복수면 임광수씨댁 농촌집을 고쳐주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(세종대전금산지사 제공)

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직원 14여명은, 3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.

이날 김선영 지사장은, “농촌 집 고쳐주기는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한 집을 고쳐주는 사회공헌 활동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일치단결해 이런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

해당 가구는 35여년 전 지어진 노후주택으로 마당의 관정이 노후되어 검은 흙물이 나와 생활용

수로 이용이 불가했으며 집안 싱크대도 모두 낡았으며 집우측 외벽은 폭우가 오면 쓰러질 듯 위험할 정도로 심각하여 리모델링이 시급한 주거환경이었다.

이날 수혜 대상자인 임광수 어르신은“불편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쳐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.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방문하여도움을 주겠다는 표시에 너무 기뻐던 기억이 난다”며 “오늘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매우 감사하다”고 전했다.

한편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는 매년 소득 하위계층의 노후주택을 고쳐주는‘농촌 집 고쳐주기’외에도‘농촌 일손돕기’‘아름다운 농촌만들기’등 농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

세종=윤소 기자 yso6649@viva100.com